

numbers 제 47호



주요 내용

2020. 05.15

1.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2. 1)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2)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지난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주변의 축복을 받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다가 갑작스럽게 이혼, 사별 등 여러 이유로 한부모로 남게 된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날이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의 7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궁핍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가구 소득이 양부모 가정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한부모들의 직업은 주로 서비스업과 판매직에 몰려 있고, 절반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야근이 일상이고 주 5일 근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한부모의 직업 유형을 볼 때, 이들 가정의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민24:19~2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47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고, 돌보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부모 가족 실태에 대한 다양한 통계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구 소득! : 국민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

-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20만 원으로 국민 전체 평균 389만 원 대비 57% 수준임
- 한부모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은 평균 8,559만 원이며 국민 전체 평균 3억 4,042만 원 대비 25% 수준에 머무름

[그림] 한부모 가구 월 평균 소득



[그림] 한부모 가구 평균 순자산(총자산-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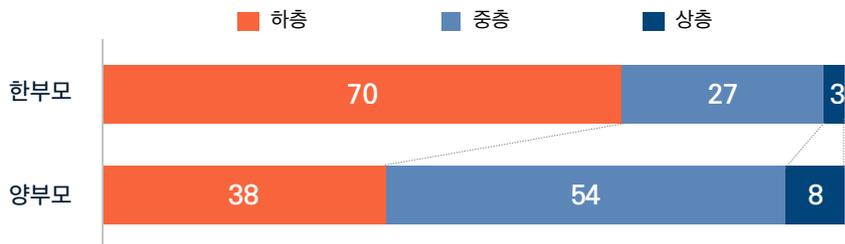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방문면접, 2018.08-11.)
 **자료출처: 통계청, '2018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2018.12.20.(전국 20,000가구 대상)

● 한부모, '나는 하층이다' 70%

- 주관적 계층 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계층에 대해 70%의 한부모가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양부모는 38%만이 '하층'이라고 인식해 이 부분에서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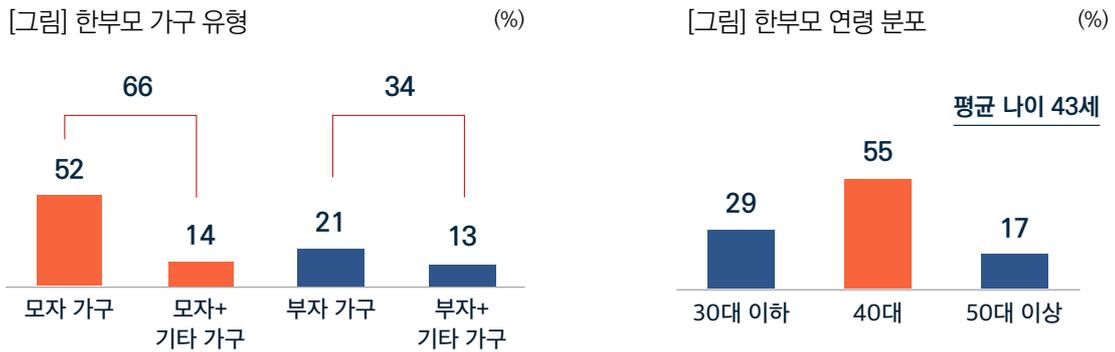
[그림] 주관적 계층 인식 (한부모 vs 양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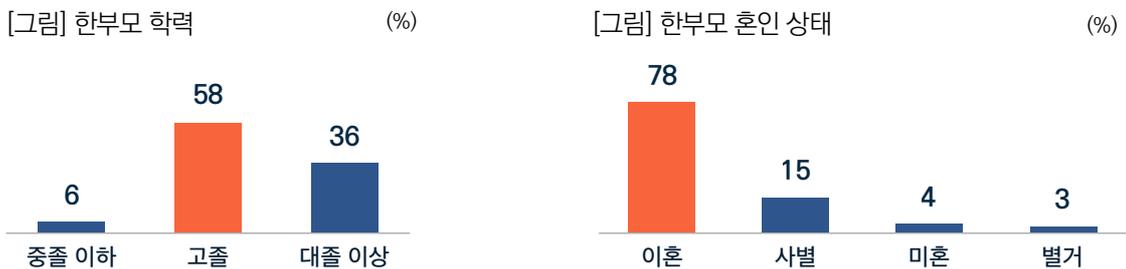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 하층: '하층+중하층', 상층: '중상층+상층'

2 한부모 특성, '40대, 여성, 고졸, 이혼자'

- 한부모 가구 유형은 '모자 가구' 52%, '부자 가구' 21%, '모자+기타 가구' 14%, '부자+기타 가구' 13%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66%이고, 3가구 중 1가구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조사됨
- 한부모 혼인 상태는 '이혼' 78%, '사별' 15%, '미혼' 4%, '별거' 3% 등으로 이혼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방문면접, 2018.08~11.)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방문면접, 2018.08~11.)

● 한부모 여성, 고용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적은 워킹 푸어(Working Poor)

-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 원인데, '모자 가구' 169만 원, '부자 가구' 247만 원으로 모자 가구의 경우 채 200만 원도 안되는 적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47%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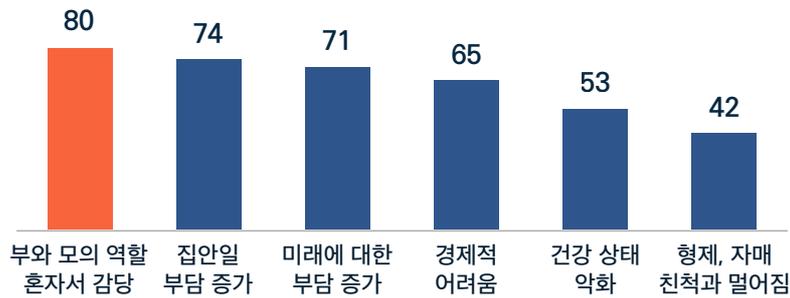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방문면접, 2018.08~11.)

3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부모 역할 혼자서 감당' 80%

-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에 대해 각 속성별로 평가를 받아보았는데, 그 결과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80%(4점 척도, 그렇다 비율), '집안 일 부담 증가' 74%,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71%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수치에 반영됨

[그림]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각 속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한부모, 부당한 일/차별을 받은 경험, 17%

- 약자들은 사회로부터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데, 한부모에게 부당한 일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에게서 17% 정도로 나타남
- 심지어 한부모의 13%가 공공기관에게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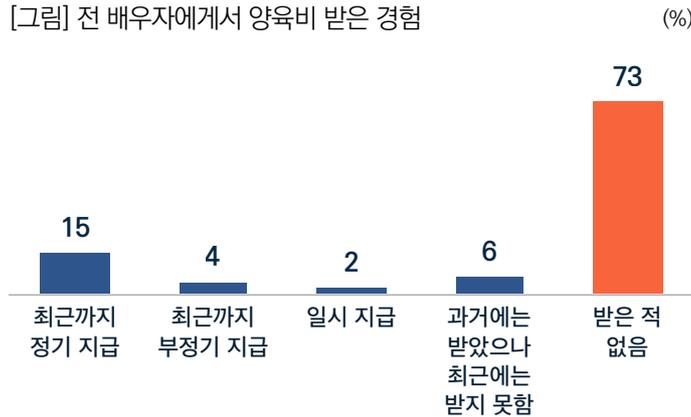
[그림] 부당한 일/차별을 받은 경험('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각 속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4 한부모,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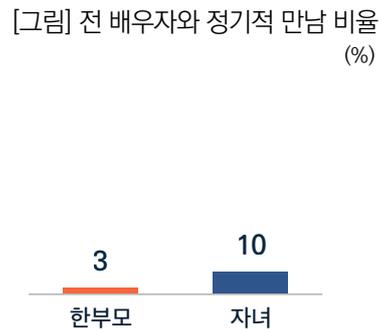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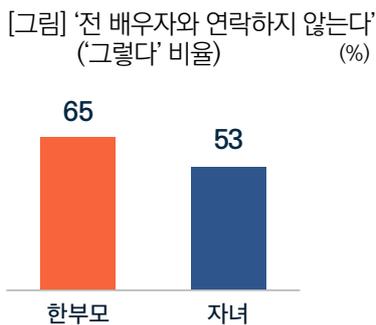
- 한부모가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게 양육비인데, 전 배우자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 73%로 4명 중 3명 정도 됨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 한부모, 자녀 모두 절반 넘게 전 배우자(부모)와 연락하지 않음

- 전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한부모 65%, 자녀는 그보다 적은 53%로 나타남
- 자녀 중 헤어진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0%로 10명 중 1명 꼴임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5

한부모의 자녀 양육,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양육비 어려움이 가장 커

-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체적으로 ‘양육비/교육 비용 부담’인데, 미취학 부모는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각 속성에 대해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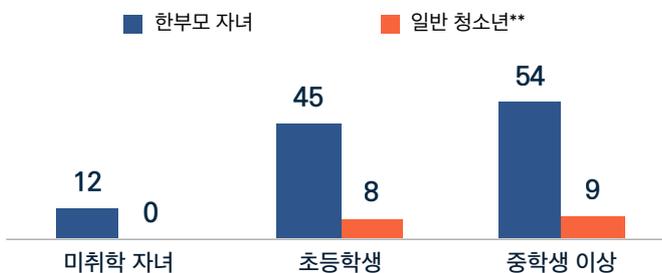
	1위	2위	3위
미취학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82%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어려움 72%	자녀 돌봐줄 시간 부족 70%
초등학생	양육비/교육비 부담 81%	양육 스트레스 59%	양육비/교육 관련 정보 부족 58%
중학생 이상	양육비/교육비 부담 85%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 73%	자녀 학업 성적 61%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각 속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한부모 가정 자녀, 평일 방과후 방치 비율 높음

- 자녀가 평일 방과후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비율이 ‘미취학 자녀’ 12%, ‘초등학생’ 45%, 중학생 이상 54%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 청소년 대상의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평일 방과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경우가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 고학년 8%, 중학생 이상 9%인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평일 방과후 자녀가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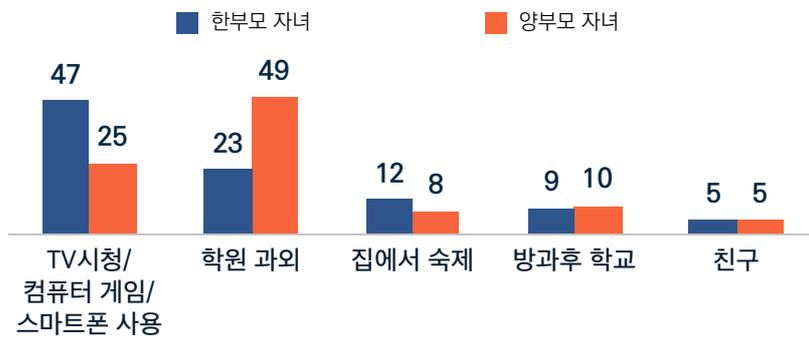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1:1가구 방문 면접, 2018.08~11.)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12. (전국 5,086가구, 청소년 7,676명, 주 양육자 5,086명, 일대일 개별 면접, 2017. 06~09), 초등학생은 고학년(9~12세)을 대상으로 함

● **한부모 자녀 방과후, 양부모 자녀보다
스마트폰/컴퓨터 게임/TV 이용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음**

-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 양부모 자녀는 ‘스마트폰/컴퓨터 게임/TV’ 이용률이 25%인데 반해, 한부모 자녀는 무려 4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학원/과외 비율은 양부모 자녀가 49%인데 반해, 한부모 자녀는 2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평일 방과후 하는 활동 (한부모 자녀 vs 양부모 자녀,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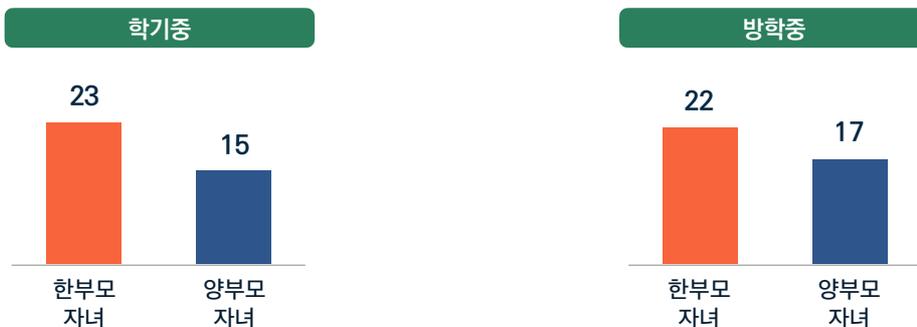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6 한부모 자녀와 양부모 자녀 차이

● **한부모 자녀의 아침 결식률, 5명 중 1명 이상**

- 한부모 자녀의 아침 결식률은 학기중 23%, 방학중 22%로 양부모 자녀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자녀의 아침 결식률(한부모 자녀 vs 양부모 자녀) (%)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 한부모 자녀와 양부모 자녀 간 사교육비, 두 배 차이

- 양부모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원인데 반해, 한부모 자녀는 15만 원으로 양부모 자녀의 절반 가량임
- 따라서 자녀 스스로 평가한 학업 성적의 경우 양부모 자녀가 한부모 자녀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월 평균 사교육비(부모 응답)



[그림] 학업 성적**(자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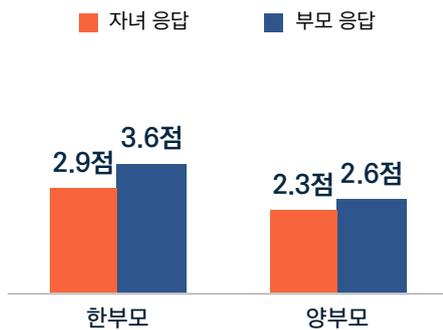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 아동이 직접 1점(매우 못함)부터 10점(매우 잘함)으로 자신의 학교 성적을 평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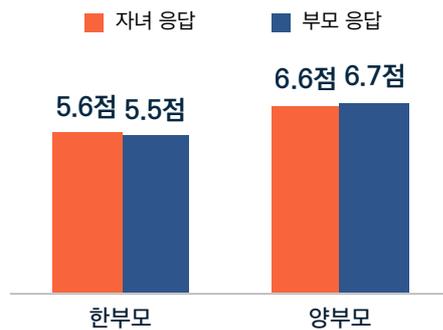
● 한부모와 자녀 모두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서 양부모(자녀) 대비 떨어짐

- 어제 우울했던 정도에 대해 한부모와 그 자녀는 양부모와 그 자녀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에서도 한부모와 그 자녀는 양부모와 그 자녀보다 점수가 떨어짐

[그림] 어제 우울했던 정도**



[그림] 삶의 만족도***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 11점 척도로 0점(전혀 우울하지 않음)부터 10점(매우 우울)까지 응답함
 *** 11점 척도로 0점(가장 나쁜 삶)부터 10점(가장 좋은 삶)까지 응답함

7

자녀가 있는 가구 10가구 중 1가구(8%)는 한부모 가족!

-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2%이며, 자녀가 있는 유자녀 가구 중에는 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



[그림] 유자녀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



*자료 출처 : 2017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한부모가족 통계,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2018.12. 3쪽)

8 시사점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한부모가 되는 계기는 이혼이 대부분(78%)인데 2019년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앞으로도 이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한부모 가정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많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한부모 가정의 가구 소득은 국민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모자 가구의 월 소득은 169만 원인데,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충격적인 수치이다(4쪽). 한부모가 직장 일을 하다 보니 자녀를 혼자 두어야 하는 등 자녀를 잘 돌보지도 못한다(5쪽, 9쪽). 또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결과로 우울증이 더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10쪽)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들의 직업은 주로 서비스업과 판매직에 몰려있고, 절반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야근이 일상이고 주5일 근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전 사회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한부모의 직업 유형을 볼 때, 이들 가정의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는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일부 교회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라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의 시선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기피하는 아이들을 모아 돌봄과 학습 지도 그리고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한부모 가정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민24:19~21). 교회가 그동안 관심을 쏟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따로 한부모 가정을 챙겨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양부모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 요즘 드라마 중에 불륜을 소재로 한 '부부의 세계'(JTBC)의 인기가 높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불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남

[그림] 불륜 '경험 있다'(그렇다' 응답, 기혼자) (%)



[그림] 불륜 '경험 있다'(그렇다' 응답, 기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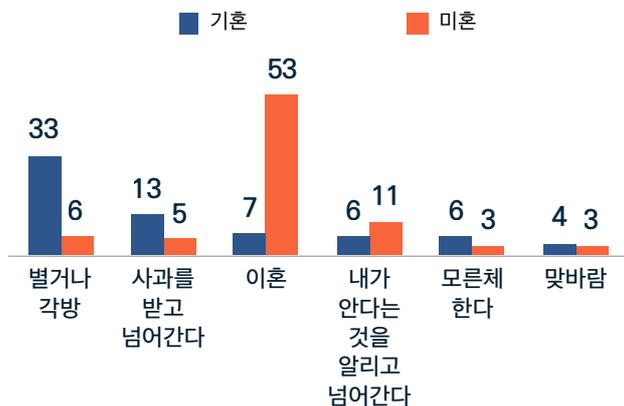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기남기녀에서 미남미녀까지...당신은 슘술인가, 불륜인가' 2020.05.09.(성인 남녀 702명, 2020.04.27.-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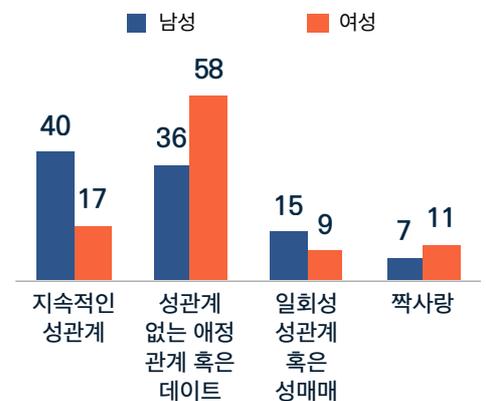
● 배우자 불륜을 만약 알았다면, 기혼자는 '별거나 각방', 미혼자는 '이혼' 이 1위

-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는 '이혼'을 53%로 가장 높게 응답해 기혼과 미혼 간 차이를 보임
-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이트'(58%)를 각각 1위로 응답함

[그림] 배우자 불륜 인식 후 대처 (%)



[그림] 불륜의 최저 기준(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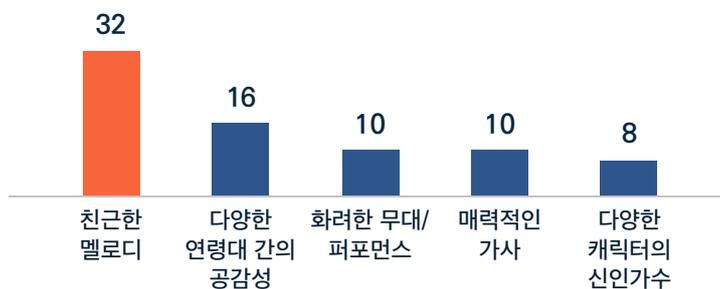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기남기녀에서 미남미녀까지...당신은 슘술인가, 불륜인가' 2020.05.09.(성인 남녀 702명, 2020.04.27.-05.06)

2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미스터트롯'(TV 조선)가 종전의 히트를 하며 트로트 인기가 무척 높는데, 톨리언프로가 트로트의 매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3월 31일), '친근한 멜로디'가 32%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연령대 간의 공감성' 16%, '화려한 무대/퍼포먼스' 10%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트로트 매력 (1순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트로트로 하나 되는 2020년 대한민국', 2020.04.01.(전국 14~59세, 1,165명, 온라인 조사, 2020.03.31.)

● 선호하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 1위

-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묻은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장윤정'이 1위를 차지함

[표] 트로트 매력 (1순위, 상위 5위)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홍진영 17% 송가인 17%	장윤정 25%	장윤정 29%	장윤정 27%	장윤정 26%
2위	유산슬 15%	홍진영 21%	홍진영 18%	홍진영 14%	송가인 13%
3위	장윤정 14%	송가인 12%	송가인 12%	송가인 10%	홍진영 11%
4위	영탁 4%	유산슬 11%	유산슬 6%	유산슬 6%	주현미 8%
5위	이찬원 3%	태진아 5%	임영웅 4%	임영웅 5%	나훈아 6%

*자료 출처 : SM C&C Tillion, '트로트로 하나 되는 2020년 대한민국', 2020.04.01.(전국 14~59세, 1,165명, 온라인 조사, 2020.03.31.)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미 대선 지지율, 각 언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 앞서고 있다](#)

VOA_2020.05.14

“미 대선 지지율, 바이든 46% 트럼프 38%”



[진보와 보수 경계선, 57세\(1963년\)부터!](#)

문화일보_2020.05.11

“86세대’ 진입에 진보로 기운 50代, 文 지지층으로 유입



[직장인 71%, “우리회사 위기상태다”](#)

매일경제_2020.05.14

“코로나19 재확산에…직장인 10명 중 7명 ‘우리 회사는 위기상태’”



[아파트 경비원 5명 중 1명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 당한다!](#)

세계일보_2020.05.14.

“경비원 5명 중 1명 입주민 갑질에 운다”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긴급여론조사 결과](#)

KBS_2020.05.11

“재난지원금 사용처 ‘식료품 구매’ 1위…“기부하겠다” 11.2%”



[통계로 검증된 젊은층의 다중이용시설 높은 이용률](#)

연합뉴스_2020.05.11

“지구촌 곳곳 감염 위험에 최악 기근까지 ‘설상가상’”



[서울/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1위\(10년간 역대 최고 청취율\)](#)

미디어오늘_2020.05.11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 신기록 1위 ”



[\[트렌드\] 아싸와 인싸에 대한 통계](#)

조선일보_2020.05.09

“아싸는 예쁘거나 연인 있으면 안된다? ‘도둑맞은 아싸’ 논쟁”

기윤실에서 개최한 긴급 좌담회 _ 2020.05.07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 위협과 기회”

[유튜브 동영상 시청](#), [자료집 다운로드](#)

좌담자 | 권선필교수(목원대 행정학과), 이윤재교수(숭실대 경제학과), 최진봉교수(장신대 예배설교학), 조주희목사(성암교회), 사회 조성돈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약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